

가스보일러 수출호조 10월까지 2000만불 넘어

가스보일러 수출금액이 올해 들어 지난 10월까지 2032만달러를 기록해 순조로운 향해를 지속하고 있다.

특히 국내 보일러 제조업체가 CS법인까지 설치하는 등 공을 들이고 있는

러시아의 경우 3분

기까지의 실적이

지난해 전체 실적

보다도 많아 눈길

을 끌고 있다.

한국무역협회가 집

계한 올해 가스보일러 수출액은 지난 9월까지 1695만5000달러로 지난해 동기 1038만5000달러보다 63.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월 수출액까지 합치면 2032만1000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수출국가도 다양화됐다.

지난 2005년까지 중국에 집중적으로 수출됐던 것과는 달리 올해 수출 1위 국가는 러시아로 총 925만3000달러를 기록해 전체 수출시장의 50%이상을 차지했다.

반면 중국 수출금액은 302만2000달러로 2위로 떨어졌고 카자흐스탄이 189만1000달러로 그 뒤를 이었다.

특히 러시아의 경우 지난 한해 542만5000달러의 수출 실적을 기록했던 점을 감안하면 이미 지난해 수출 실적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보일러 제조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005년까지 중국이 최대 수출 국가였지만 상대적으로 가스 가격이 높고 가스배관 공사의 지연 등으로 건설시장이 얼어붙고

있는데다 유럽 국가와 중국 자체 생산 보일러제품의 선호도가 증가하는 추세여서 국내 업체들의 수출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러시아 판매 큰 폭 증가, 저년 실적 이미 상회

가스온수 난방기 수출도 뚜렷한 성장세 기록

하지만 중앙에서 난방을 통제하고 있는 라디에이터 방식을 사용하는 러시아는 최근 온돌난방의 장점을

가진 한국형 보일러가 크게 각광으로 받고 있으며 특히 생활수준으로 인한 저가시장이 형성되고 있어 유럽형 보일러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국내 가스보일러의 선호도가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에는 천연가스 생산을 통해 러시아 곳곳에 가스배관이 형성되고 있어 향후 러시아 가스보일러 시장에 대한 보일러 제조사들의 관심도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스온수기의 올해 3분기 누적 수출액은 49만6000달러로 지난해에 비해 125.5% 증가했으며 가스난방기는 492만4000달러를 기록해 지난해에 비해 26% 증가했다.